

農工技術者の 엔지니어링 活動

朴 在 龍

(韓國農工學會 副會長)



우리나라에서 法으로 정한 엔지니어링 活動의 技術部門은 機械, 船舶, 航空, 및 宇宙, 金屬, 電氣 및 電子, 通信 및 情報處理, 化學, 纖維, 鑛業資源, 建設, 環境, 農林, 海洋 및 水産, 産業管理 및 應用理學 등 15個 部門으로 分類되어 있고 農工技術은 公式名稱을 “農漁業土木” 이라 하여 建設부문의 土質 및 基礎, 土木構造, 農漁業土木, 土木品質試驗, 港灣 및 海岸, 道路 및 空港, 鐵道, 交通, 水資源開發 上下水道, 建築構造, 建築品質試驗, 都市計劃 造景, 建設安全, 火藥類管理, 建築機械設備, 및 建築電氣設備 등 18개 分野 중 세번째의 1개 分野로만 分流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農工分野는 他技術分野가 대부분 土木 또는 建築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에 비하여 여러 分野의 土木을 결집한 技術로서 대부분의 農工技術者들은 적어도 5~6개의 전문분야를 수행할 수 있는 技術能力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런데도 農工分野 및 農工技術者들은 土木 建設業이나 엔지니어링 活動에서 賤待와 冷待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되고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 禁할 길 없다.

선배들로부터 자랑스럽게 전해 들은 우리나라의 土木事業은 日本人들이 擄取를 目的으로 하였다지만 1920年代 초반부터 댐, 水路, 道路開設 및 移設, 干拓 등 農地改良事業을 시작한 이래 수십년간 土木技術을 蓄積하여 왔다고 한다.

반면 一般建設事業은 별로 활발치 못하였다가 6.25전쟁 復舊 이후 國土開發事業을 하면서 道路, 鐵道, 港灣, 住宅 등 모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投資되어 왔다.

투자에 비례하여 技術은 급속도로 발전되어서 이제는 海外技術에 어깨를 겨룰 만한 수준에 도달했는데 農工技術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 農工技術者들은 反省해 봐야 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政策 立案者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農村을 되살리자고 외쳐왔지만 農漁民은 농경연 資料에 의하면 전국민의 13.1%밖에 안된다니 누가 그들을 農村에서 離農케 만들었을까? 살기좋은 農漁村을 建設하지 못하고 農工技術者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말인가? 아니면 그들은 열심히 쾌적한 農漁村을 建設하여 왔는데도 農漁民은 農漁村을 버리고 都會地로 떠났단 말인가?

筆者의 個人적인 見解로는 政策立案者들은 그들대로 언제나 똑같이 그들의 자리지키기에 급급한 發言이나 하여왔고, 農工技術者들은 열심히 技術者적인 일을 하고 싶어도 그들이 하여야할 技術發揮을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할 일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비근한 예로 技術者로서 最高의 資格이라 할 수 있는 技術士가 農工分野에서 1993년 10월 현재까지 101명이 輩出되었고, 그중 90명이 在野 또는 公職에 從事하고 있다. 특히 在野에

있는 50여명은 技術士 資格으로서 技術다운 技術業務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그들에게는 수십년간 拾得한 技術理論과 經驗을 發揮해 볼 業務가 없는 것이다. 이런 형편에서 農工技術이 發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에 더해서 요사히 立法豫告 된 것을 보면 農工技術事業은 아예 政府傘下團體에 專擔시킬려고 한다. 이는 철저히 官主導로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러한 統制된 政策으로는 더 이상 農工技術事業의 發展을 期待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世界적인 추세가 모든 分野의 開放이 不可避한 時代에 오히려 문을 닫고자 하니 國際的 競爭은 고사하고 나라 안에서도 움추러들고 後退만 持續될 發想을 立案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農工技術者들은 5~6개의 土木分野 技術을 修行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기 專攻의 農工分野 業務가 작기 때문에 農工技術者로서의 엔지니어링 活動을 하지 못하고 農工分野를 떠나 一般土木으로 吸收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초 農工學會의 理事會 資料에서 會員現況 중 會員資格喪失 예정자가 수백명이나 되고 또 그들이 대부분 업계 從事者들이라는 것을 보고 다른 이사님들(학교 또는 公職從事者)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筆者는 어이가 없었다.

學校나 公職에 在職하면서 農工學會에 會員으로 加入했다가 業界로 進出하면 대부분 連絡이 두절된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農工技術者가 業界로 나가면 一般土木技術者로 變身되면서 그곳에서 生存競爭을 하다보니 자기 친정집은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農工學會를 떠나게 된다는 뜻이다.

現在 재벌급 建設會社 중 몇몇은 과거에 農地改良事業으로부터 成長하였고 회사내에 農工事業專擔部署를 두고 있었으나 현재 國內의 유명 建設社 중 農工部가 存續되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엔지니어링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93년 10월 현재 建設部門의 엔지니어링업체 수는 317개 사인데 그 중 109개 사에서 農漁業土木 엔지니어링 活動을 하겠다고 신고되어 있다. 그러나 유명 엔지니어링사들의 農工部는 한곳도 없이 모두 없어졌다. 따라서 業界에서 農工技術者들은 거의 다 사라졌고 극히 일부만이 미미하게 명맥을 維持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筆者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국에 建議하면서 農工分野의 技術發展과 農工技術者의 蘇生을 바라는 바이다.

첫째, 農工分野의 業務開發을 부여하기 바란다. 예를 들면 현재 당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農業用水의 종합적인 再開發을 적극적으로 推進하여 環境이 汚染되고 있는 農漁村을 快適하게 淨化하는 일 같은 것이다.

둘째, 官主導를 과감히 改善하여 農工技術을 폭넓게 活用하기 바란다. 官이 아니면 안된다는 舊時代의인 생각이 農工技術發展에 沮害要人인 것이다.

셋째, 모든 農工事業을 農工만을 위한 아집으로 計劃하지 말고 視野를 넓혀 다른 分野까지 포함시켜 計劃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위의 세가지 建議事項이 단계적으로라도 이루어진다면 農工分野와 技術者들은 예전 이상으로 活氣를 되찾을 것이다.

엔지니어링 活動에 몸담고 있는 筆者가 자신의 專攻分野를 누어서 침벨기 식으로 批判해야 하는 처지를 서글프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언젠가는 改善되겠지 하는 希望을 갖고 忍耐하며 期待해 보기로 한다.